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가장 큰 계명

마태오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반대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몇 가지 논쟁을 제시합니다. 세금 논쟁(22,15-22), 부활 논쟁(22,23-33), 큰 계명 논쟁(22,34-40), 다윗의 자손 논쟁(22,41-46) 등입니다. 이런 논쟁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짐작하듯 예수님께 올라가기를 씌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 올라가기를 씌우려고 의논 했었고(22,15) 오늘 복음에서 또다시 ‘한데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이들의 모임이 정기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한데 모인 바리사이들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대표해서 물음을 제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바리사이들 가운데 출중하고 율법 지식에 탁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대에 율법 학자들이 오래도록 사색하고 논의하던 물음을 제기합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마태 22,36)

당대에는 준수 규정 248조항과 금지 규정 365조항을 합하여 모두 613조항을 율법 규정으로 준수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묻는 물음이라, 전체 율법 규정에 통달하지 않고는 답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누구도 탄축을 걸 수 없도록 열심하다는 신앙인들이 날마다 여러 차례 바치던 쉼마 기도문에 담긴 신명기 6,5의 말씀을 꼽으십니다.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으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도 이와 같다면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둘

째'는 중요도의 순서가 아니라 나열된 순서일 뿐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느님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산상설교의 말씀과 연관시켜 본다면, 여기서의 이웃은 친지들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5,43-48). <마태오 복음, 이우식, 참조>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누고 봉사하며,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훌륭한 징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신자분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을 종종 만납니다.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봉사하면서, 옳은 것을 위해 노력하면서, 성실히 기도하면서도 자신은 부족하다고 여기거나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기대치가 높거나 자존감이 낮아서, 또는 지나친 책임감이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적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게 되고, 만족을 모르니 행복에서 멀어져 있게 됩니다. 결국 의도치 않게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것입니다. '이정도면 괜찮아, 항상 모든 일을 잘 할 수는 없잖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잖아'라고 생각하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격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어, 정말 수고 많았어,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잘 할 수 있어'라는 자세에서 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정도면 괜찮지, 누가 뭐라해도 흔들리지 않을거야'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데서 나오고,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필요는 없어, 나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야'라며 지나친 책임감을 줄이는데서 비롯됩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여정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조금씩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반대자들의 무리와 마주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그분에게 올라가미를 씌우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런 속마음을 아시고도 예수님께서서는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불안해 떨지도 않으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굳건하십니다. 자존감이 확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깊이 있게 이웃과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성 본당 황영화 마티아 신부



전 레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율법 교사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따르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새 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삼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입당성가 : 46번 ‘사랑의 송가’

본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탈출기 22장 20절-26절

안 내 :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이방인들을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묵 상 : 자비하신 하느님께서서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께 자비를 청해야 하고, 환난 중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며 우리는 자비로운 분의 자녀입니다.

화 답 송 :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제2독서 : 테살로니카 1서 1장 5절-10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카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묵 상 :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그것이 비록 환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느덧 우리는 주님의 진리에 다다를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22장 34절-40절

강 론 : '가장 큰 계명'(1-2쪽)

예물준비성가 : 217번 '정성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174번 '사랑의 신비'

영성체 후 묵상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하느님만을 생각하기 위해
세상과 떨어져 지내기도 합니다.

<침묵>

하지만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침묵>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
풍요로워지는 우리의 마음과 삶은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거룩해지고 완덕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5번 '사랑의 하느님'

※ 공소사목 성금

박기완님	30,000원	김수일님	50,000원
김금열님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5,87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 림

■ 예비신학생 체육대회

- 일시 : 10월 29일(주일) 12:00
- 장소 : 함창 상지여자중고등학교

■ 교리교사의 날

- 일시 : 11월 5일(주일) 10:00 - 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초·중·고등부 교리교사
- 준비물 : 주일미사 준비, 간편한 복장, 운동화
- 신청 : 10월 30일(월)까지 사목국으로
- 참가비 : 1인 10,000원

■ ‘새로 나는 성경공부’ (역사서)

- 일시 및 장소 :
 - 안동 - 11월 11일 18일 25일 12월 2일 9일 16일
교구청 (토요일 13:30-17:00)
 - 함창 - 11월 13일 20일 27일 12월 4일 11일 18일
함창 성당 소성당 (월요일 19:30-22:00)
- 강사 : 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김 루치아나 수녀
- 회비 : 1인 30,000원(교재비 포함)
- 신청 : 11월 2일(목)까지 사목국으로

■ 예비신학생 부모 성지순례

- 일시 : 11월 12일(주일)
- 장소 : 전주교구 나바위 성지, 천호성지
- 준비물 : 미사준비, 목주, 편한 신발, 모자
- 회비 : 1만원

■ 2017년 열린 성경 강좌 7

- 일시 : 11월 13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준비물 : 신, 구약 성경
- 참가비 : 1인 2,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문경 엠마오 기쁨 피정의 집 축복미사

- 일시 : 11월 17일(금) 11:00
- 장소 : 문경읍 지곡리 태극기마을 끝동네
(문경성당에서 5분거리)

■ 제4차 가나혼인강좌(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11월 18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11월 16일(목)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예비신학생 성지순례

- 일시 : 11월 19일(주일)
- 장소 : 부산교구 언양성당, 살티공소
- 준비물 : 미사준비, 목주, 편한 신발, 모자

■ 안동가톨릭문인회 시화전

- 일시 : 10월 21일(토) ~ 29일(주일)
- 장소 : 교구청

■ ‘한국천주교사료목록화사업’을 위한 본당 사료 수집 요청

- 목적 : 역사자료 보존 및 활용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보관하는 오래된
사진, 책, 성물 등
- 마감 : 10월 30일(월)까지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울리안나 010-8560-1654

■ 생명환경연대 생태기행

- 일시 : 11월 4일(토)
- 장소 : 지리산 칠선계곡 추성리-선녀탕-
비선담 왕복 걷기(4km:3시간)
※ 벽송사 관람-지리산 조망공원-
지안재 경유 복귀
- 대상 : 안동교구 생명환경연대 회원 및
생명과 환경에 관심 있는 신자
(지리산 칠선계곡 걷기는
3시간 이상 도보 가능한 자)
10월 말까지 선착순 120명
- 문의 : 안동 마명락 010-6300-1711
영주 김영모 010-2630-2206
문경 안장수 010-8361-2087
상주 윤병권 010-7488-7564
- 참가비 : 1인 10,000원(중식은 개인 준비)

■ 청년연합회 음악피정

- 일시 : 11월 4일(토) 15:00 ~ 5일(주일) 15:00
- 장소 : 화령성당 화북공소, 상주 솔솔 펜션
- 강사 : 생활성가 ‘하늘바라기’
- 참가비 : 1인 30,000원
- 문의 : 사목국(858-3114~5)

■ 안동교구 성령대회

- 일시 : 11월 11일 10:00 - 17:00
- 장소 : 함창 본당
- 회비 : 5천원(중식비 포함)
- 강사 : 두현자 울리안나
- 미사주례 :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6장
사목적 전망

오늘날 가정에 관한 복음 선포

209. 본당 공동체가 약혼한 이들이 혼인 준비 과정을 잘해 나가도록 도와줄 때에는 이 준비 과정이 약혼한 이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위험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에서, 그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실패를 겪지 않으려면, 그러한 관계의 확립이 무의미하다는 인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서로에게 눈이 멀어서 많은 것들을 숨기거나 가볍게 생각하고 논쟁을 피하려다 보니 나중에 문제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약혼한 이들이 저마다 혼인에서 기대하는 것, 사랑과 헌신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 함께 이루고자 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표현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그들이 실제로 공통점이 거의 없다는 것과 상호간의 끌림만으로는 결합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욕망보다 더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결합이 지속될 수 있는 참다운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동기들을 약혼자들이 찾아낼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의 혼인 결심을 촉구해서는 안 됩니다.

210. 상대방의 단점을 확실히 알아차리게 되면, 어떠한 경우든 그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그 단점을 상쇄시키는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그가 인격적 존재가 되도록 도우려는 확고한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확고한 의지로 희생과 어려움과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 이에 대비하려는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혼한 이들이 혼인하기 전에 문제들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려면 그들의 관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위험 신호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로 혼인을 합니다. 그들은 그저 함께 즐기며 함께 경험을 하면서 그들 자신을 보여 주고 상대방이 진정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야 하는 도전을 회피합니다.

211. 혼인 준비와 오랫동안에 걸친 동반으로, 약혼한 이들은 혼인을 하나의 여정의 목적이 아니라 성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성소로 그들은 모든 시련과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확고하고 현실적인 결심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약혼한 이들과 혼인한 부부들을 위한 사목은 무엇보다도 혼인 유대를 위한 사목이어야 하며 그들이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문제점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소중한 자원에 의존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실질적 방법과 현실적인 조언과 검증된 구체적 대책과 심리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의 교육을 이루며, 오늘날 젊은이들의 감수성에 맞추어 그들이 내적 성숙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약혼한 이들이 혼인 준비를 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장소와 사람, 곧 상담소나 가정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고해성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해성사를 통하여 그들은 과거의 죄와 잘못, 그리고 관계 자체를 하느님 앞에 드러낼 수 있으며 하느님의 자비로운 용서와 치유의 힘을 받습니다.

혼인 거행의 준비

212. 혼인 준비 기간은 하객 초대, 예복과 피로연 준비, 그리고 금전뿐만 아니라 힘과 기쁨을 고갈시키는 다른 많은 소소한 일들의 준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혼한 이들은 그들이 부부로 함께 내딛게 될 커다란 발걸음을 준비하는 데에 전념하기 보다는 지치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일부 사실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과 이 사랑을 다른 이들 앞에서 공식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신에 많은 비용이 드는 혼인 예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혼을 한 이들은 절대로 그 예식을 거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혼자 여러분, 남들과 다를 수 있는 용기를 지니기 바랍니다. 소비주의와 허례허식의 사회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은총으로 강화되고 거룩하게 되어 여러분을 결합시켜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우위에 두고 검소하고 소박한 예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목 일꾼들과 공동체 전체는 이러한 사랑의 수위성이 예외적인 것이 아닌 보편적인 것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213. 혼인 준비에서 약혼한 이들이 혼인 전례를 깊이 체험하도록 깨우치고 그 전례의 각각의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약혼한 이들이 모두 세례 받은 이들인 경우에, 혼인 합의로 표현되는 그 커다란 약속과 혼인을 완결하는 두 몸의 결합은 하느님의 아드님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강생하셔서 당신의 교회와 사랑의 유대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세례 받은 이들의 경우에 말과 행위는 신앙을 훌륭하게 표현하는 언어로 변화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 때에 부여하신 의미를 간직한 인간의 육체는 “혼인성사의 집전자의 언어가 되어 그들이 하느님 안에서 시작된 신비가 혼인의 서약 안에서 표현되고 실현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 다음에 계속 -



살림터 이야기

예술의 향기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향토화가의 초대전을 다녀왔다. 바쁜 일상 틈틈이 그려온 그의 대표작품 22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대부분 고향의 풍경을 그린 것으로 작계는 5호부터 큰 것은 100호까지 크기가 다양했다. 그림에는 문외한이지만 작가의 고향사랑과 정성이 느껴졌다. 무려 20여년만의 첫 개인전이라고 하니 고단했을 기다림의 시간이 대단해보였다.

폐교를 리모델링한 문화공간에서였지만 열기는 도시의 여느 화랑 못지않았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다. 시골에 살아도 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문화생활을 즐길 준비가 되어있다는 희망을 본 것 같아 흐뭇했다. 때맞춰 농촌에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는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는 것이 좋아 오로지 독학으로 전문가가 되었다. 20여 년 전 뜻을 같이 하는 몇 명과 함께 시작했다고 한다.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며 험난한 여로를 쉬지 않고 걸어온 그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은 것이다. 부단한 노력과 끈기로 전문가 반열에 오른 그가 부러웠다.

남들이 인정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본업이 아닌 취미로 한다면 불가능에 가깝다. 그에게서 끈질긴 예술가의 혼이 느껴졌다.

지역에 전문예술가들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문학, 음악, 회화, 연극 등 각 분야에서 예술의 향기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런 전문가들의 영향으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행복하고 감성이 충만한 삶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 막연하게 꿈꿔오던 것에 직접 도전해보고 성취감을 만끽할 때 비로소 온다. 긍정적인 정서가 많은 사람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산다고 한다. 이익이나 명성이 아닌,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에 도전했으면 한다.

나도 악기 하나는 제대로 다뤄보고 싶었다. 마침 직장에 관악단이 구성되어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트롬본 이었다. 1주일에 두 번씩 모여 연습을 하며 연주자로서의 꿈을 키워나갔다. 생각만큼 실력이 늘지 않아 조바심이 났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화음이 만들어졌다. 완벽하지는 못해도 처음 내 귀로 관악단의 연주소리를 들었을 때의 환희와 감동은 결코 잊을 수 없다. 각각의 악기가 내는 소리가 조화를 이루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구나 싶었다. 사정이 생겨 취미활동이 계속되지는 못했지만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아있다.

요즘에는 농촌에도 취미삼아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다양한 분야에 동호회가 생기고, 교습소도 늘었다.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면서 실력을 쌓아 떨리는 마음으로 첫 발표를 하고나면 자신감과 함께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초대전이 계기가 되어 이제 시골에도 자주 전시회가 열리고 연주회가 개최되었으면 한다. 세련되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소박하고 정성이 가득 담긴 작품과 공연은 충분히 감명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재능 있는 예술가의 등장을 기대할 수도 있다. 활발한 문화교류나 예술 활동은 각박한 삶을 좀 더 여유 있게 해주는 윤희유가 된다. 지역예술가의 존재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이번 초대전이 그래서 더 의미 있고 반갑다.

녹슨 채 방치되고 있는 트롬본을 손질해야겠다. 중단했던 연주가의 길에 다시 도전해 보리라. 향토화가의 예술혼이 나를 설레게 한다.